

August 2026

앗, 7 월도 이렇게...

정기 소식 한번 못 드리고 2026 년이 이렇게 훌 지나고 있네요. 1 월 초부터 시작된 여행과 일정이 계속되면서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고 그 은혜의 뒤에는 늘 함께 기도하며 때로는 염려로, 응원으로 힘이 되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심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폭염의 더위가 지금의 이곳 보다 더 하다는 소식에 강건함과 평강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GIBY 출판사업

매일 말씀읽기 교재인 바이블타임(BT)이 2026 년에는 새 디자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매월 발행하던 것을 연 2 회(6 개월 1 회)로 요약 읽기를 출간했고, 2027 년 1 약읽기는 연 3 회 발행으로 준비중입니다. 온라인이 일상이 되면서 오히려 말씀 읽기 집중이 어려운 현실에서 미○마 교회가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사학교에서 강의하며 설교해 온 Dr. Jeremiah 목사님이 설교노트를 담은 설교집을 내년 2 월에 발행하기 위해 원고를 다듬는 중입니다. 순조로운 발행을 위해 사령님의 인도하심과 예레미야 목사님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교육지원

코로나와 미○마의 정치 상황에서 갑자기 학생수가 증가했던 MAY 학교는 홍수와 지진을 겪는 중에도 본당 2 층 건물을 완공하여 작년 12 월에는 지진으로 미뤄진 졸업식과 성탄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2 층에 마련된 ○배실에는 매주 주일 ○배가 이어지고, 지난 2 월에는 3 명의 세례식까지 있었습니다.





FGOBC

20 여년 전 미○마 ○곤에 정착했을 때, 강의했던 FGOBC 는 미○마 복음주의협의회에 속한 복음자유교회 교단 산하 入 학교입니다. 제가 만○크이로 사역지 이동할 즈음, 교단과 학내 문제로 학교 교수진들이 완전 교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소원해졌지요. 옛 제자가 새 학장으로 부임하여 젊은 교수진들과 한 마음으로 학교를 지켜가는 것을 보고 학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학교를 지원하던 현지 교단 대부분 교회들은 내전으로 많은 이들이 탈출한 친주와 라카잉주에 있고,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 또한 그지역에서 탈출한 실향민들이다 보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학생 일대일 매칭 후원: 기숙사비 포함 학비 1 년에 865,000 쯤 (\$200, 약 30 만원)

*2026 학년도 총 등록 학생은 46 명 (4 학년 8 명, 3 학년 11 명, 2 학년 12 명, 1 학년 15 명)중 도움이 절실한 10 명을 우선 추천받음. 관심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학장님의 자세한 요청 편지를 공유하겠습니다.





현지 교회 협력

제1 회 GIBY 사역파트너 가족 캠프(3/31-4/2): 2010 년부터 ㅇ곤과 만드르이, 스가잉, 니로와 니레묘 지역에서 교회 및 스학교, 출판과 교육, 고아원 그리고 IDPs 난민 사역으로 좋은 파트너로 함께했던 10 가정 정도의 미ㅇ마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았지만 한 번 꼭 모여 웰로십을 가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정치이슈로 여행이 힘들어지고 지진 발생으로 또 취소되었다가 드디어 올 3 월 드디어 7 가족이 참여하여 서로의 사역을 보고하고 교체하며 의미 있는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연속되기를 바라는 아쉬움을 안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곤-사가잉-끼러를 잇는 청지기 리더십 세미나

○곤을 떠난 이래로 올 상반기처럼 매월 ○곤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와 청지기 리더십 세미나로 여러 교회들의 초청이 많았던 상반기입니다. JRFC ○수 다스림 웰로십 교회, Gxd's Family 하나님 가족 교회, ALC 풍성한 삶 교회, living Water 생명수 교회, Love Cxxistian 사랑의 교회 등 오랜 만에 ○곤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지난 5 월에는 사가잉의 FVC (열매맺는 포도나무 교회) 교회에서는 사가잉 교육대생을 비롯 청년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대를 졸업하고 2 년 의무 봉사를 위해 약혼녀를 두고 전화도 wifi 도 안 되는 자주 전투가 있는 궤짜나 시골로 향하는 우이안 형제를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의무직을 마치고 무사히 사가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6월 첫주간에는 **꺄러AG 교회의 봉헌감사 여전도회 세미나**를 위해 두 분의 리더 사모님과 함께 강사로 섬기기 위해 오랜 만에 꺄러를 다녀왔습니다. 홍수로 침수되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지 3년 만입니다. 너무나 이쁘게 지어진 교회에 감사하며 믿는이들이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꺄러의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따웅지에 **PCH 교아원**도 방문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인 곳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코로나 때 건축을 지원했었는데, 완공되고 한 번도 방문을 못했던 곳입니다. 스티븐 목사님 내외께서 신실함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격려하고 왔습니다.



‘아메’(어머니)하며 낯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향해 다가옵니다.

5 월 말, ○곤의 한 미○마 목회자 모임 참석 중에 우연히 눈이 마주친 목회자 한 분이 너무나 반갑게 저를 맞이합니다. 15 년 전, FGOBC 신학교에서 강의했을 때, 그 신학교에는 사정이 어려웠던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수들이 매칭 후원자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당시 저의 담당이던 밍떼 학생이었습니다. 소식 수단이 어려웠던 시절이라 졸업 후 연락이 단절되었다가 어엿한 목회자가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강한 카잉지역 (인도 방글라데쉬와 국경)에서 목회를 하던 중, 올 3 월에 교단 총회에서 FGOBC 入학교의 새 학장으로 추대되어 ○곤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학장님에 대한 염려를 안고 오랜 만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미 학교를 섬기고 있던 교무처장과 학생처장님들 젊은 3 인방이 함께,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한 마음으로 학교를 잘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힐링은 그만, 함께 앞으로!

어려운 시기 함께했던 친구들이 점점 외국으로 떠나고,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미○마에 남아있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easy money 를 찾거나 종일 유튜브와 TikTok 을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NGO 에서는 트라우마 힐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넘치고 있는데, 돌아보니 이 어두운 시간이 이미 5 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힐링 프로그램을 넘어 이들이 살아가도록 고민하며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사야 6:13)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미○마에 남아있는 자들은 실패자(Loser)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명자’, 그루터기가 되어 ‘○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 되는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젊은이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The holy seed will shoot forth! 마침내 그 거룩한 씨가 싹을 틔우기를...

여름비 내리는 만델레이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정시나 드림